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에 관한 고찰

신 경 규
(고신대, 선교학)

I. 들어가는 말: 선교신학의 편향성 - 본문(Text)과 상황(Context)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는 성경의 본문(text)을 중시 여겨서 복음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성하여 양육이 일어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구현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복음 그 자체를 중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의 내용을 중요시 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본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시대적 상황(context)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에 비하여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인간의 역사과정 속에서의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초창기 에든버러 대회(1910)의 낙관적인 전망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선교 현지에서의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인한 착취와 가난,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서의 관심도 복음전도는 도외시 된 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환치되고 만다. 물론 여기서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본문(text)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자들이 그토록 상황(context)에 대해 강조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선교에 있어서 17세기부터 계속 되어온 복음주의적 의미의 통전적 선교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극단적으로 한 측면으로 강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의 부분을 등한시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에큐메니칼 신학이 등장하여 상황신학으로 극단화하기 시작한 것이다.¹⁾ 당시 현대주의와 사회복음의 영향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복음을 수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양극화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극화로 치달았다. 복음주의 진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라든지, 사회구조적 악으로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무관심한 채 전적으로 선교의 수직적 차원인 복음전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복음전도의 강조보다 수평적인 관심에 치우쳤는데, 공동체들의 인간화나 고통 받는 자들의 해방과 같은 사회·정치적 활동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려는 데에 몰두했다.²⁾ 이러한 상황의 배후에는 대표적으로 현대주의와

1) 김광열, “총체적 복음사역의 성경적 원리에 관한 연구,” 『총체적 복음사역의 신학과 실천』 4호, (총체적 복음사역 연구소, 2007), 82.

사회복음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이제 20세기 이후 읍살라 WCC 총회와 방콕 CWME 대회를 중심으로 상황신학을, 그리고 이러한 상황신학의 등장과 전개에 대응하여 성경적 복음을 수호하려고 애썼던 로잔대회 중심의 본문신학이 전개된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두 신학 진영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상황중심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A. 에든버러 세계복음화대회

현대의 첫 세계적인 선교대회라고 할 수 있는 선교대회가 에든버러 세계복음화대회(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WMC, 1910)이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이나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모두 교회의 오랜 선교운동에서 태동된 것으로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³⁾라는 같은 뿌리에서 태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대회는 19세기 선교 및 연합운동의 총결산이면서 동시에 20세기 선교 및 연합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에든버러 선교대회(1910)는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18세기 이후 당시까지 지속되어온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역사적 발전주의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를 향한 복음전도와 역사발전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구원하자!”⁵⁾가 에든버러대회의 구호인 것을 고려하면 이 대회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개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대회에서 던져진 중요한 물음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How mission?) 라는 것이었다. 즉 선교는 복종되어야 할 성경이라는 본문(Text)에서 명하는 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자연히 그 다음 단계인 선교의 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선교의 목적과 목표에 관해서 에든버러 대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독교의 확장, 모든 민족들의 삶을 기독교화 하는 것, 회심,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세계의 복음화, 기독교적 영향을 끼치는 것 등이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점진적으로 세워나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⁶⁾

그런데 이 대회는 비록 과거의 대회들을 계승하긴 했지만 많은 면에 있어서 이전의 여러 선교대회에 비해 명백하고도 건설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잉태한 양면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보를 나타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국 1910년은 교회연합운동이나 향후 선교운동의 방향성을 위해서나 결정적인 해가 되었다.⁷⁾

2)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338.

3)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WEF).

4) Ruth and S. C. Niel. ed.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PCK., 1967), 353-373을 참조.

5)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6)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80), 160-161.

7) 배본철. “WCC 선교론의 변천과 논제,” 『역사신학논총』, (제 19집, 2010), 102. 에든버러 회의는 독창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1854년 뉴욕과 런던, 1860년 리버풀, 1878년 런던, 그리고 1900년 뉴욕대회 등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에든버러 선교대회는 순수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인 대회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식민주의의 수탈과 독재정권의 폭압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어지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개최된 각 대회에서는 각각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었다.

B. 국제선교협의회(IMC) 대회

에든버러대회에서 선출한 존 모트(John R. Mott)를 위원장으로 하는 계속위원회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5년이나 지속되면서 더 이상 에든버러 세계선교위원회의 공식 기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 이후에야 계속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국제 선교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1919년 스위스의 크랜스(Crans)에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1921년 미국의 뉴욕 레이크 모호크(Lake Mohonk)회의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를 창립하게 되었다.⁸⁾ IMC는 교회의 협의회가 아니고 여러 개의 국가 단위협의회 또는 작은 지역 단위협의회 그리고 연합회가 모인 협의회였으며 선교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 논의, 협조, 해결하는 데에 그 목표를 삼았다. 그런데 이 협의회 목적 중의 하나가 선교협의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⁹⁾

IMC는 교리적 및 교회론적 문제에 대한 논의나 결정을 하지 않기로 전제하고 모인 선교대회였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구미 신학자들 간에 성경(Text)의 영감과 무오성 등에 관한 교리적 갈등은 선교 연합운동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1923년 옥스퍼드에서 모였던 IMC 위원회는 교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¹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교리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체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교리적 문제에 별로 저촉되지 않는 사업¹¹⁾에 힘쓰기로 합의한 것이다.¹²⁾

에든버러대회 이후 IMC 예루살렘 대회(1928)에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그것은 그 사이에 세계역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때문인데, 에든버러 대회 이후 세계 역사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1914), 러시아 혁명(1917)으로 인해 낙관적인 인간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반대한 근본주의 논쟁과 신정통주의 대두로 인해 신앙적인 보수화 현상, 양극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회에서는 화해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 신학적 방향성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¹³⁾

IMC 탐바람 대회(Tambaram, 1938)에서는 1차 세계대회 이후 여전히 불안했던 세계정세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거치는 상황에서 개최된 대회로서 결국 이 대회 반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파쇼정권을 경계하고 항의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이 강조된다.¹⁴⁾ 이 대회에서는 예언자적 증거(Prophetic

8)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상)』,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7), 263.

9) Ibid., 263-264.

10)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성광문화사, 1987), 49.

11) 통계수집, 마약제거 운동, 교육, 성경번역, 기독교서적 출판, 학교 및 병원 설립 등

12)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49-50.

13)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9.

14) Ibid., 67. 에든버러대회(Edinburgh, 1910)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강조 되었고, 예루살렘대회(Jerusalem,

Witness)가 강조되는데 이것은 당시 세계상황과 관련이 된 것이다.

IMC 휘트비 대회(Whitby, 1947)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분위기가 대단히 침체된 상황에서 개최된 선교대회이다. 전쟁과 이어진 냉전시대, 피선교지의 독립전쟁 등이 지속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양 기독교 선교국에 대한 피선교지의 투쟁, 선교회와 선교지가 갈등, 반 서양, 반 선교국, 반교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세계교회의 협력이 요청되던 관계로 이 대회의 주요 논의 점은 (1) 세계교회의 교제(koinonia) 강조, (2) 교회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강조, (3) 선교는 초국가적 과제가 강조되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신학은 20세기 중반까지 복음전도 중심의 전통적 선교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더 존스톤(Athur P. Jonston)은 1948년 암스테르담 WCC 1차 총회를 평하며 신학적 입장이 IMC보다 더 복음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¹⁵⁾

이러한 흐름은 1928년 예루살렘 IMC부터 선교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대회는 사회적 강조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영향인지 1938년 탐바라 대회는 다시 복음전도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세계 전역에 걸쳐 일어난 경제 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여러 시대적 상황은 선교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강조로 이어졌다.

C. 읍살라 이전의 에큐메니칼 진영의 여러 대회

초창기 WCC 총회의 신학은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상황(context)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은 아니었다. 본고에서 제5차 WCC 나이로비 총회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은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 로잔대회(1974) 이후 선교신학에 있어서 사회참여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참신하게 정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그 이후 개최된 WCC 나이로비 총회 이후부터는 WCC의 신학적 기조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IMC 휘트비대회 1년 후에 개최된 제1차 WCC 암스테르담 총회(Amsterdam, 1948)의 주제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이었으며, 이 대회에서 WCC가 결성되었다.¹⁶⁾ 당시는

1928)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강조된 것과 대비된다.

15) Athur P. Jo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임홍빈 역. 『세계복음화를 위한 투쟁』, (서울: 성광문화사, 1989), 95.

16)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1948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44개국 147개 회원 교회로부터 온 351명의 대표들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제 1차 WCC 총회를 개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WCC총회(1948, 주제: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경륜,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다. 제 2차 미국 에반스톤 총회 (주제: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희망, Jesus Christ-the Light of the World), 제3차 인도 뉴델리 총회(1961년, 주제: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제4차 스웨덴 읍살라 총회(1968년, 주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Behold, I will make All Things New), 제5차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총회(1975년, 주제: 자유케 하시며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제6차 캐나다 밴쿠버 총회(1983년, 주제: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Jesus Christ-the Life of the World), 제7차 호주 캔버라 총회(1991, 주제: 오소서, 성령이여 -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Come, Holy Spirit - Renew the Whole Creation), 제8차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 총회(1998년, 주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 소망 중에 기뻐하자, Turn to God, Rejoice in Hope), 제9차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Porto Alegre) 총회(2008, 주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를 거쳐 5년 후인 2013년 제10차 부산 WCC 총회(2013, 주제: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161.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가 전개된 시기에 열린 총회로서, 본 총회에서는 초기 ‘삶과 봉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책임적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책임적 사회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그 어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안에서도 마땅한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그와 같은 책임수행의 표준은 기독교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것이다.¹⁷⁾ 이 책임적 사회를 위하여서 우선 세계사회 내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는바, 그것은 ①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관련된 것, ② 이웃에 관한 책임과 관련된 것, ③ 진리에 대한 것이다.¹⁸⁾ 이에 근거하여 당시 위기를 만든 두 가지 요인은 ‘힘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경제적 집중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힘의 집중으로 보았다. 이 대회에서는 고삐 풀린 ‘자본’과 ‘정치의 힘’이 ‘정의’라는 사회의 목적에 종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¹⁹⁾ 냉전시대라는 상황이 선교신학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IMC 빌링겐 대회(Willingen, 1952)의 시대적 상황도 중국의 공산화(1949)와 선교사추방(1950), 한국전쟁(1950) 등으로 대단히 우울한 분위기였다. 이 대회는 WCC 결성(1948)이후 첫 선교대회로서 이 대회에서 ‘선교개념’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대회의 핵심 기조는 “교회의 선교적 의무”²⁰⁾이었으며 이 대회에서 강조된 선교관은 “십자가에 순종하는 선교”²¹⁾였다. 이 대회 역시 시대적 상황(context)이 대회의 선교신학적 기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사회참여가 더 강조되는 흐름은 1952년 빌링겐 IMC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인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Missio Dei 개념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의 의도와 다르게 화란계 신학자 후켄다이크(J. C. Hoekendijk)에 의해 그 개념이 변질되었다.²²⁾ 빌링겐 IMC 대회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행자(the agent)로 이해되어졌다.²³⁾ 그러나 선교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했던 후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단순히 ‘교회의 선교’보다 포괄적이라는 견해를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선교에서 교회를 배제시키려고 하였다.²⁴⁾ 후켄다이크의 영향으로 ‘샬롬(Shalom)’을 선교의 목적으로 두고, 세상 안에서 ‘샬롬’을 구현하는 것을 선교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²⁵⁾ 이 때 부터 에큐메니칼 선교는 전통적인 선교와 다른 관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열린 WCC 제 2차 총회인 에반스턴 총회(Evanston, 1954)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희망”이란 주제로 개최 되었는데 세계는 중국의 공산화 계기로 동서 냉전체제로 접어들었고,²⁶⁾ 한국전쟁(1950-53)이 종료되고 냉전이 본격화 하여 베를린혁명(1953)으로 전 세계가 긴장의 연속이었다.²⁷⁾ 이후 IMC 가나 대회(Ghana, 1958)에서는 제3세계 교회의 지도자 양성과 신학 교육의 갱신을 위하여 TFF(Theological Education Fund)를 창설하여

17) 이형기. 『에큐메니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2011), 61.

18) Ibid., 62.

19) Ibid., 63-64.

20) The Missionary Obligation of the Church

21) The Christian Mission under the Cross

22) 신경규. “Missio Dei의 본래적 의미와 의미변화에 관한 고찰,” 『고신선교』 제 4권, (2007). 참조.

23)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22.

24)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1), 392.

25) 이현모.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선교학의 대응과 변화,” 『복음과 선교』 13집 (울리브나무, 2009), 295.

26) 이 대회 전, UN은 제1차대회인 암스테르담의 ‘책임적 사회’를 받아들여 1948년 12월에 ‘인권선언’을 확정 발표하였다. 기독교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형기. 『에큐메니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69.

27) Ibid., 69-70. 그러한 긴장은 마침내 헝가리혁명(1956)년에 폭발하는데 그것은 대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제도적으로 WCC계의 교회가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이 대회에서는 WCC와 IMC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IMC와 WCC의 통합이후 최초로 개최된 WCC 제3차 총회인 뉴델리 총회(New Delhi, 1961)는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베트남전쟁의 확산 와중에서 진행된 대회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비인간화에 관심을 기울였다.²⁸⁾ 이 총회에서는 ‘보편구원설’(universalism)이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으로 채택되었다. 총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세상의 빛”²⁹⁾이었는데, 이 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에큐메니칼 전도방법으로 ‘대화’(dialogue)를 택했다. WCC 뉴델리대회에서는 보편주의적 내지 혼합주의적 선교의 개념이 표면화하기 시작했고, 보다 과격한 혁명적 형태의 사회봉사와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점차 성경이라는 본문(text)에서 멀어져 상황(context)만을 고려하는 신학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D. 읍살라 WCC 총회와 방콕 CWME 대회

이와 같이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 반응이 과연 성경이라는 본문(text)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WCC 제3차 총회인 뉴델리 총회(New Delhi, 1961)는 “교회의 선교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승인하여 위저(Wieser)에 의해 중간보고서가 편집되었고, 1967년 서구 유럽 실행위원회(the Western European Working Group)과 북미 실행위원회(the North American Working Group)에 의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³⁰⁾ 이 보고서인 『타인을 위한 교회』, (The Church for Other, WCC)는 선교를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고, 선교의 목적을 이 땅에서 ‘살롬’을 건설하는 것과 ‘살롬’이 유색인종의 해방, 노사관계의 문제 해결, 사회사업, 직업윤리 등,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데, WCC 읍살라 총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³¹⁾

WCC 제4차 총회인 읍살라 총회(Uppsala, 1968)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상황과 성격에 있어서 대단히 논란이 된 대회였다. 읍살라 WCC총회는 선교에 있어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데에 최고점을 찍었다.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특징은 상황에 민감하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것인데, 읍살라 대회 당시 세계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우울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월남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서 반전운동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로서 국론이 나라마다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되어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1960년대는 학생세력이 증대되어 기성세대에 반항하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이 극도로 심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JFK),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RK), 마틴 루터 킹 목사(M. L. King) 등의 암살되었고,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으며, 월남전의 악화 등으로 세계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격렬한 학생

28)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0), 172-173.

29)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30)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382.

31) John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5), 17.

운동이 미국과 서구 국가들에서 일어났고, 청년 세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기독교 및 반 교회적인 도전이 일어나자 에큐메니칼 진영은 강력한 사회 정의와 인간성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³²⁾

이에 따라 읍살라 총회는 “인간화”(Humanization)를 선교의 목표로 삼았는데, “복음화”(Evangelization)를 선교의 목표로 삼았던 수직적 전통적 선교에서 “인간화”라는 수평적 선교의 개념을 도출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 대한 문제인데, 비인간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선교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인간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선교 또한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³³⁾ 이런 읍살라의 입장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 영역을 구속하시며, 온전케 하기 위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선교로 만들었다.³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방운동이나 정치혁명이 선교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읍살라 총회의 전체 논의 내용도 (1) 선교의 목적은 새로운 인간형성(the new humanity). (2) 타자를 위한 교회. (3) 타종교와의 대화 문제. (4) 사회구원에 대한 견해 강조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a) 선교를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동참하는 것. (b) 선교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해했는데 대회는 그 중 전자에 집중하게 된다. 이 대회 이후 Missio Dei에 관한 전자의 개념은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복음주의 로잔대회에서는 Missio Dei에 대한 후자의 견해를 취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도 결국 상황(context)이 신학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빌링겐에서 시작된 Missio Dei 선교개념은 하나님의 활동을 구속사에서 세속사로 옮기게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활동은 구속사가 아닌 혁명, 인권운동, 개혁운동과 같은 세속사 가운데 잘 나타나기에 읍살라의 선교는 교회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으로 확장되게 되었고, 선교의 목적 또한 복음전도를 통한 회심이 아닌 새로운 인간화, 성숙한 인간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읍살라 총회는 ‘인간화’란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료, 사회복지, 정치경제활동, 사회개혁,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투쟁 등 풍요로운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을 ‘선교’의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³⁶⁾ 읍살라의 선교는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읍살라 총회에서 오랜 기간 WCC 총무로 활동하였던 비써 후프트(Visser’t Hooft) 박사는 “수직적 차원을 상실한 기독교는 소금의 맛을 잃은 기독교로 그 자체가 무미건조할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다.”³⁷⁾는 말로 읍살라의 한 편으로 치우침을 지적했다.

방콕 CWME 대회(Bangkok, 1973)는 WCC의 선교 및 전도분과위원회(CWME)의 대회로서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구원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는데,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여 구원의 이해를 현재적, 상황적으로 개념화 하고 신학적으로 재해석 하였다. 오늘, 이 시대가

32)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225.

33) Ibid., 227-228.

34) Donald A. McGavran. “The Current Conciliar Theology of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65.

35)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111-112.

36)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25.

37) John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21.에서 재인용.

요구하는 구원이란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유함을 얻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등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였다. 선교를 사회구조적인 악을 제거 또는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선교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므로 참 살롬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³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교는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투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교를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구조적인 악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읍살라를 거쳐 방콕대회는 선교에 있어 극단적으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에큐메니칼의 극단적 선교개념으로 인해 전통적인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은 소멸되거나 식어 버렸다. 영적인 어둠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식어진 것이다. 이렇게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이유에 대해 맥가브란(D. A. McGavran)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유리카(Eurica) 지역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90% 이상 유아세례를 받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빈곤을 없애며, 질병을 퇴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복음전도가 아닌 세계 각 곳에서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평가이다.³⁹⁾ 그러나 맥가브란의 이러한 평가는 유리카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보기 보다는, 당시 억압받고 비인간화 상황에 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민중의 상황에 대한 급진주의자들의 성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고 본다. 읍살라 총회가 선교의 초점을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에 대해 바이어하우스는 맹렬히 비판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조성하여 점차 비신앙적, 반선교적인 방향으로 전향될 것임을 지적했다.⁴⁰⁾

III. 본문중심의 복음주의 선교신학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성경이라는 본문(text)을 당시 상황과 현 상황에 해석, 적용하는 데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는 신학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로잔대회 이전 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에큐메니칼 진영이 상황신학을 강조할 때 마다 그 이후 따로 대회를 개최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여기서는 먼저 로잔대회 이전의 복음주의 대회에서 천명된 신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 로잔대회(1974) 이전

1. 휘튼 세계선교대회(The Congress o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1966)

38) Donald A. McGavran, “The Current Conciliar Theology of Mission,” 66-67.

39) Donald A. McGavran, “What is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20.

40)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92-93.

1966년 4월 9일에서 16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Wheaton)에서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는데, 71개국으로부터 거의 1,000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는 초교파 해외선교회(IFMA)⁴¹⁾와 복음주의 해외 선교회(EFMA)⁴²⁾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적 좌경화에 대한 반발로 모이게 되었다. 특히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적 오류, 즉 그들의 신학이 자유주의인 것과 선교를 수평적인 사회적 행위로 대치시킨 것 그리고 연합하기 위해 성경적 진리의 우선성을 포기하는 오류들을 지적했다.

대회는 선교가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회 개척사역(church planting)을 모든 선교 중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이해했다.⁴³⁾ 이런 맥락은 자연적으로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를 강조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 복음적 선교를 비판하였지만,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게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선언은 세상과 분리하는 비성경적 분리에 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종차별, 전쟁, 인구 폭발, 가난, 가정 파탄, 사회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문제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⁴⁴⁾ 실패한 것에 대해 고백한다. 특히, 선언문 중 “선교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9세기에는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적 관심에 주도적이었던 반면, 20세기에는 많은 이들이 성경적 관점을 상실한 채, 스스로를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에의 충분한 참여가 없는 개인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한해왔다. 신학적 진보주의와 인본주의가 역사적 개신교 교회에 침투하여 “사회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사회 참여와 복음증거 사이에는 대립이 존재한다는 자각이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을 점차적으로 자신들도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에 참여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⁴⁵⁾

휘튼 선언은 과거 한편으로 치우친 것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게 했다. 18-19세기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으며, 개인과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임을 인정했다.⁴⁶⁾ 이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본,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전인적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복음주의자들은 개인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의 우선성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의지한다.”⁴⁷⁾

복음주의자들의 사회 참여의 근거를 성경(text)에서 찾는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보여준다.(미6:8)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의 영적 요구뿐

41) IFMA(1919 The Interdenomination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는 에딘버러 대회(1910)의 신학적 견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1917년 프린스턴에서 창설되었다.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의 태도를 보이며, ‘믿음 선교’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이다.

42) EFMA(1943 The Evangelical Foreign Mission Association)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인 단체로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결속한 단체이다.

43)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205-206.

44) The Wheaton Declaration.

<http://www2.wheaton.edu/bgc/archives/docs/wd66/bcov.html> (2014. 4. 20. 현재).

45) Ibid.

46)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404.

47) The Wheaton Declaration.

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요구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마5:-9:)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을 따랐다.(갈2:10; 골3:11; 약1:27; 2:9-11)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주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29-31) 성경적 근거에 의해 선언은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전제로 한 사회 정의와 인간복지를 강조한다. 즉, 선교를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진영과의 차이를 두면서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복음주의적 사회 행동은 가능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것이다.”고 함으로 사회적 책임을 독자적인 부분이 아닌 복음전도와 연계된 것으로 보았다.⁴⁸⁾ 즉, 이 대회에서는 사회참여를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나 사회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선언문은 복음의 수직적 측면만 강조했던 복음주의 진영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선언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제 3세계에서 온 많은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논문을 발표하고, 영감이 넘치는 연설을 하였다.⁴⁹⁾ 제 3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휘튼대회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복음주의 통전적 선교 신학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겪고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주의 선교신학 진영에서도 여전히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

2.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The World Congress on Evangelism, 1966)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제3세계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제3세계교회를 포함한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베를린(Berlin)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규모면에서는 휘튼보다 큰 대회였다.⁵⁰⁾ 1966년에 있었던 휘튼 교회세계선교대회와 베를린 세계복음화회의는 1961년 IMC를 흡수한 뉴델리 WCC 총회에 대한 충격으로 발생한 대회로 볼 수 있다.

휘튼대회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회의 개최 이유에 관해 빌리 그래함은 “왜 베를린 대회인가?”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복음전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잘못된 동기들을 바로 잡기를 원했다. 복음전도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인본주의와 비슷하게 된 상황에서 복음전도의 올바른 방법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⁵¹⁾ 베를린대회의 신학적 기초는 성경에 그 권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강연과 연설은 선교의 기초와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강조했다. 선교의 성경적 근거와 동기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에서 찾게 되었다.⁵²⁾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선교적 사명이 복음 선포임을 확고히 했다.⁵³⁾

48)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404.

49) Rene' C. Padilla, 한화룡 역,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휘튼 66에서 휘튼 83까지,” 『복음전도·구원·사회 정의』, (서울: IVP, 1987), 54-55.

50) 노봉린. “로잔대회 이후의 복음주의 선교운동,” 『선교와 신학』 제5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0), 54. 그의 노력으로 인해 *Christianity Today*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00개국 이상 1,100여 명이 베를린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는 휘튼대회보다 규모가 크다.

51) Ibid., 166-169.

52)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211.

53) 아더 존스톤(Athur Jonston)은 베를린 대회를 근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복음주의적 사건으로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이유를 가지는데, 첫째는 복음전도대회가 전면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제에 반영된 단순성과 영적인 감동이라고 언급하였다. Athur P. Jonston. *The Battle for World*

대회는 ‘한 인류, 한 복음, 한 과제’(One Race, One Gospel, One Task)라는 제목을 다루었는데, ‘한 인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인류의 통일성을 뜻하며, ‘한 복음’이란 성경적 복음의 사도적인 통일성과 유일성을 말하며, ‘한 사명’이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의미한다.⁵⁴⁾

대회는 에큐메니칼 진영에 의해 등한시되고 왜곡되고 포기되기까지 한 ‘복음전도’에 대해 의도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⁵⁵⁾ 그러므로 대회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물론 ‘복음전도의 장애물’이란 주제로 모인 분과를 통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구조 속에 악으로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가 복음선포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인식했다.⁵⁶⁾ 그러나 그것에 대한 깊은 사고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은수는 이에 대해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그 이유를 찾는데,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가 개인의 회심을 통한 복음화가 아닌 사회 구조의 혁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선교활동 또한 복음전도가 빠진 사회적 행동만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칼 헨리와 빌리 그래함은 비난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⁷⁾

베를린 대회는 모든 토론의 핵심을 복음전도에 두고, 다른 사항들은 복음전도의 결과로 두었다. 빌리 그래함은 사회적 관심을 지지했으며, 복음전도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회심하게 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가장 주된 임무로 둔다면, 사람들이 변화될 뿐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필요들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변혁의 결과들은 회심하는 사람들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했다.⁵⁸⁾ 이는 베를린 대회가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참여 중심에 대한 반발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복음전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으며,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⁵⁹⁾

베를린대회는 사회참여에 대한 고려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언급이 있었다고 해도 복음전도의 수단 내지는 결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사회참여 측면에서만 볼 때, 휘튼 선언에 비해 오히려 후진 내지는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성경 본문, 그 중에서도 신약에 편향되어 상황을 무시한 편향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카고 선언(Chicago Declaration of Evangelical Social Concern, 1973)

1966년에 있었던 두 대회의 영향으로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논쟁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려 있던 복음주의자들을 1973년 11월 23부터 25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사회적 관심에 관한 추수 감사절 워크숍’에 모이게 했다.⁶⁰⁾

Evangelism, 156.

54) 이동주, 『현대선교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204.

55) Rodger C. Bassham “선교신학의 발달 (1948년-1975년),” 267.

56) Samuel Escobar. *A Time for Mission: The Challenge for Global Christianity*, 권영석 역, 『벽을 넘어 열방으로』, (서울: IVP, 2004), 178.

57)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213.

58) Athur P.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168.

59) 이은경, “세계선교대회에 나타난 빈곤에 관한 고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44.

60)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역,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서울: CLC, 2013), 27.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 칼 헨리(Carl Henry), 포이 발렌틴(Foy Valentine), 버나드 램(Bernard Ramm), 프랭크 게벨린(Frank Gaebelein), 폴 리스(Paul Rees) 원로들과 짐 윌리스(Jim Wallis), 폴 헨리(Paul Henry),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와 같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오직 사회적 이슈들만을 위해 주말을 통째로 헌신한 것은 20세기 들어와 처음 있는 것이라

이 워크숍에서 나온 “복음주의적 사회참여를 위한 시카고 선언”은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전통적인 이원론적 관점이 아닌 분명한 증거를 통해 제시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⁶¹⁾ 이 선언서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신다.”는 확인과 함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표명하며,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는 제자도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⁶²⁾

시카고 선언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복음전도 중심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⁶³⁾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세 번의 대회를 통해서 선교 사명에 있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룸에 있어 깊이 상고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선언문에 묻어 있지만, 이렇다 할 복음주의 선교 신학적 입장을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세 대회는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에 대한 입장을 ‘로잔언약’으로 합일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III. 두 선교신학의 합류점

A. 로잔대회(1974): 복음주의 선교의 각성

복음주의 연합은 WCC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칼에 대한 반대적 성향이 크다. 1961년 IMC와 WCC의 통합과 그 결과로 나타난 복음전도의 약화와 사회적 책임 한편 강조는 복음주의 진영을 결집 시키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1966년에 있었던 휘튼 세계선교대회와 베를린 세계복음화회의는 1961년 IMC를 흡수한 뉴델리 WCC 총회에 대한 충격으로 발생한 대회로 볼 수 있다.

WCC 선교신학이 극단적으로 사회 강조로 치달을 때, 복음주의 진영은 그에 대한 반대 성향으로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휘튼대회는 성경에 근거한 선교를 표방하였고,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선교를 사회적 책임으로 바꾼 것에 대해 비난했다. 베를린 대회 또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평의 사회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 최고조였던 1968년 읍살라 WCC총회는 극단적인 사회적 책임 강조로 흘러갔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을 ‘인간화’로 표방했는데, 이러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기 위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강조했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방콕 CWME 대회(1973)는 복음주의 진영의 대대적인 연합을 가속화 시켰다. 방콕 CWME 대회는 선교의 ‘모라트리움’을 주장함으로 선교사 파송과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구원을 총체적 관점이 아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수평적 차원의 강조만 있었다.⁶⁴⁾ 이런 방콕대회의 “오늘에 구원”은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개최하게 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타임지(*Time*)의 리처드 오슬링(Richard Ostling)은 말했다.

61) Rene' C. Padilla, 한화룡 역,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휘튼 66에서 휘튼 83까지,” 60-61.

62) Ibid., 61.

63)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28.

64) 이동주. 『현대선교신학』, 209-210.

이렇게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74)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 하는 복음화를 대회의 목적으로 삼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⁶⁵⁾ 빌리 그래함은 연설을 통해 “복음전도와 영혼의 구원은 교회의 우선적 사명이다.”⁶⁶⁾라 함으로써 대회의 목적과 방향성이 복음전도임을 천명했다. 이렇게 로잔대회가 시작할 때,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에 대한 관점은 복음전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 부분은 뮌헨대회와 베를린 대회의 입장이었던 복음전도의 결과라는 견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될수록 복음전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반영되므로 로잔신학은 복음전도와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다.⁶⁷⁾

로잔세계복음화 선교대회는 그동안 복음전도 한편으로 치우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 사고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혁명적인 대회였다. 복음주의 진영의 통전적 선교에 대한 각성에는 존 스토틀(John Stott)의 영향이 컸는데, 당시 로잔 임시위원회 의장이었던 스토틀은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에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권위 같은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를 생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급진적 제자도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시키는데 공헌했다.⁶⁸⁾ 그의 노력으로 로잔 언약은 4항 ‘복음 전도의 본질’과 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특히 5항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⁶⁹⁾고 고백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선교에 있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체, 한편만을 강조했던 극단의 모습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게 했다. 20세기 이전 복음주의 선교의 귀한 유산으로 행해져 왔던 선교의 수평적 사명의 회복과 통전적 선교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갈 수 있게 했다.

존 스토틀가 이해한 대위임령은 ‘복음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대위임령의 결과일 뿐 아니라 대위임령 자체라는 것이다.⁷⁰⁾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복음전도의 책임과 함께 사회봉사의 책임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선교에 대한 그의 사고전환과 포괄적 이해는 그의 삶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그는 1960년대 제 3세계의 가난을 목격한 후 선교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결코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극단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한 WCC 읍살라 대회가 그에게 있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⁷¹⁾

존 스토틀의 선교개념은 소위 ‘급진적 제자그룹’의 지지와 함께 로잔 언약에 영향을 미쳤는데, 4항의 복음전도와 함께 5항에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무로 명시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⁷²⁾

65) Ibid., 205.

66) Billy Graham, “Why Lausanne?”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31.

67)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271.

68) René Padilla, “From Lausanne I to Lausanne III,” *Journal of Latin American Theology*, (5 no 2 2010), 24-25.

69) The Lausanne Covenant, par 5. www.Lausanne.org (2014.4.20. 현재).

70) Ibid., 23.

71)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복음과 선교』 제22집 (올리브나무, 2013), 12-13.

로잔언약은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⁷²⁾라는 고백을 통해 선교의 수직적 부분과 수평적 부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사명임을 천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⁷⁴⁾는 고백은 선교를 복음전도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로잔 언약이 이해하는 구원과 복음, 선교는 총체적(holistic)으로 개진되고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이 고민해 온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문제”도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교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음전도에 우위성(primacy)을 둔다.⁷⁵⁾ 로잔언약 6항은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희생적 사역과 같이 세상 깊이 희생적 침투를 요구하는데,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⁷⁶⁾고 언급하면서 교회의 선교에 있어 우선순위가 복음전도에 있음을 진술한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그의 책 『세계를 향한 증거』(*Witness to the World*)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완전한 동일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섯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⁷⁷⁾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선교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로잔대회에서는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한 북미 복음주의의 입장은 복음전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 참여의 문화 속에 있었던 영국 복음주의의 존 스토틀와 불의와 빈곤, 억압 등의 상황 속에 있었던 제 3세계 복음주의의 입장은 선교에 있어 사회·정치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복음주의진영 안에 이러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신학적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⁷⁸⁾ 이렇게 복음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서로 상이한 입장 차이 속에서 이루어진 “로잔 합의”는 갈등의 불씨를 가지게 된 것이다. 본문신학이 상황신학을 어우르기에는 시간과 더 많은 토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B. 로잔대회(1974) 이후 통전적 선교 확립을 위한 노력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불편한 로잔 합의”는 로잔대회 이후의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는 부류와 로잔언약의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꺼려

72) The Lausanne Covenant, par 5.

73) Ibid.

74) Ibid.

75) 존 스토틀는 로잔 언약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해 “‘둘 다 모두’라는 진술일 뿐이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항들은 그것들을 서로 관련시키려는 아무런 시도도 없이 그저 나란히 놓여 있다”고 말한다.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339.

76) The Lausanne Covenant, par 6.

77)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1997), 45-46.

78) Valdir R Steuernagel. “Social concern and evangelization: The Journey of the Lausanne Movemen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5, Issue 2 (April, 1991) <http://web.ebscohost.com.eproxy.pusan.ac.kr/ehost/detail?vid=5&sid=16aed316-b84d-40d9-be63-d16eb89be541%40sessionmgr115&hid=103&bdata=JnNpdGU9ZWwhvc3QtbGl2ZQ%3d%3d#db=a9h&AN=9704170486> (2014. 4. 20.현재).

하는 경향의 부류로 나뉘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로잔대회의 통전적 선교에 대한 각성 후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관계에 대해 협의회와 대회마다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성장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로잔 위원회 회의에서 선교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교의 “넓은”이해와 “좁은”이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협의 과정에 긴장감이 있었다. 회장 레이튼 포드(Leighton Ford)는 회의가 복음전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으며, 도널드 호크(Donald Hoke)는 “나는 검소한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가 실수라고 느낀다.”고 우려를 표할 정도로 급진적인 회의로 인식하기도 했다.⁷⁹⁾

이후 영국의 하이리(1980)에서 협의회가 열렸는데, 그 중심에는 로잔협의회의 존 스토틀(John Stott)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의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선교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이리 협의회의 방향을 결정했다.⁸⁰⁾ 하이리 협의회는 로잔 9항이 언급한 가난에 대해 더 구체화한 것으로 “검소한 생활방식을 위한 복음주의 서약”⁸¹⁾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로잔 연약의 “증인들과 종들”(witnesses and servants)⁸²⁾이란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 이 대회가 로잔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서약은 “책임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부르심은 책임 있는 증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⁸³⁾ 고백함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선교의 사명으로 보는 복음주의 진영의 통전적 선교를 재확인한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전도 중심의 대회도 있었는데, 1980년 태국 파타야에서 열렸던 세계복음화대회(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이다. 파타야대회의 주제는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였는데, 대회는 세계 복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대회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문서기록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복음전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⁸⁴⁾ 즉 파타야 대회는 로잔대회 이전의 전형적인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200여 명의 복음주의자 대표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LCWE⁸⁵⁾ 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정의와 평화의 영역을 배제한 채 복음전도만 강조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우려를 표시했으며⁸⁶⁾, 올란드 코스타스는 “냉담하고 실망스럽다.”고 대회를 평가했다.⁸⁷⁾ 이렇게 로잔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좁은 의미의 선교와 넓은 의미의 선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다.

하이리 협의회(1980)와 파타야 대회(1980)는 로잔진영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다른 두 가지의 견해를 보여줌으로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갈등이 여

79) Ibid.

80) Valdir R Steuernagel, “Social Concern and Evangelization: The Journey of the Lausanne Movement.”

81)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82) John Stott, ed.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143.

83) Ibid., 148.

84) Paul E. Pierson. *The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266.

85) ‘로잔세계복음화대회’(The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LCWE)를 뜻한다. 로잔대회의 공식명칭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ICWE)이다.

86)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406-407.

87) Robert A. Hunt, “The History of the Lausanne Movement, 1974-2010,”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April 1, 2011), 83.

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82년 미국 미시간 주의 그랜드래피즈에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로잔언약의 5항의 사회적 책임과 6항의 복음전도 우선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회의로 두 관계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정리하는 데 노력을 다했다.

회의는 복음전도의 ‘우선권’에 대해 “논리적 우선순위,” 즉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없이는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일시적인 필요를 가볍게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영원한 운명의 문제”라는 것을 도출함으로 두 진영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므로 ‘동반자적 관계’와 ‘우선권’은 화해될 수 없는 개념 이기보다는 보충적인 것으로 이해” 되었다.⁸⁸⁾ 회의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consequence)이다. 2)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다리(bridge)가 된다. 3)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동반자(partner)이다. 이렇게 회의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복음주의 내의 두 진영이 모여 최대한의 합의를 끌어내려고 노력함으로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하나의 획일화된 견해로 선언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들을 선언문에 반영하는 포용적인 면을 보여주었으며, 복음전도에 대한 ‘논리적 우선권’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화합적인 입장도 보여주었다.⁸⁹⁾

통전적 선교는 마닐라에서 개최된 2차 로잔대회(1989)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종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온전한(holistic) 복음이어야 하며, 그 복음은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한다.”⁹⁰⁾고 한다. 이는 로잔으로 시작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통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물론 복음의 논리적 우선성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선언은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통전적 선교의 적용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이 세상에서 구두 선포의 증인뿐만 아니라 섬김의 행함으로 증인이 되는 고민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⁹¹⁾

이러한 로잔대회와 이어지는 여러 번의 후속 대회를 통하여 복음주의의 본문중심의 신학이 상황까지 어우르고 포괄하는 신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음주의의 본문신학이 상황신학과 결합되어 균형을 이루는 신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C.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개념 재정립과 확장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대회의 영향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는 사회적 책임의 극단적인 강조에서 다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88) John Stott, ed. "The Grand Rapids Report o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1982),"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170.

89)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21-22.

90) 조종남. “국제 로잔과 아시아 로잔운동,”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 마음』, (서울: 미션 아카데미, 2007), 111.

91) Rene' Padilla. "From Lausanne I to Lausanne III," 21.

1974년 로잔세계복음화 대회의 영향으로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는 통전적 선교로 재정립되기 시작한다.

복음주의 로잔대회 1년 후인 197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린 나이로비 5차 WCC 총회는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다시 강조한다. 나이로비에서 모티머 아리아스(Mortimer Arias)의 발제가 관심을 끌었는데, 그는 WCC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것과 수직적 차원의 복음전도와 수평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한편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했다.⁹²⁾ 복음전도에 대한 강조는 제 1분과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보고서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값싼 회심에 대해 개탄하며 이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 하지 않는 회심을 개탄한다."고 고백하며⁹³⁾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이런 대회의 성격은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 모두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통전적 선교를 재정립한다. 통전적 선교는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복음"⁹⁴⁾이란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6차 WCC 벤쿠버 대회 역시 복음주의 진영의 영향으로 인해 수직적 방향이 강조되었다.

에큐메니칼의 통전적 선교는 1980년 멜버른 CWME 대회와 1989년 샌 안토니오 CWME 대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개인에 대한 복음전도와 구원의 강조와 Missio Dei의 현재적-종말론적 시각을 반성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통전적인 선교를 강조하였다.⁹⁵⁾

멜버른 CWME 대회(1980) 이후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경제적 의미로 치우쳤다는 복음주의자들로 부터의 비판을 받은 WCC는 1982년 WCC 중앙위원회에서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증언"⁹⁶⁾이라는 선언을 통해 선교와 전도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evangelism)와 사회참여행동(social action)을 갈라놓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영적인 복음'(spiritual Gospel)과 '물질적인 복음'(material Gospel)은 '예수 안에서' 하나의 복음임"을 강조하였다.⁹⁷⁾ 이로써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특수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성격임을 보여주는 통전적인 시작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이후에 개최된 샌안토니오 CWME 대회(1989)의 주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른 선교"⁹⁸⁾로서 직전 대회인 멜버른 CWME 대회(1980)의 주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의 후속으로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주제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 이어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장차 오게 될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드러지는 수동태적 기도문이다.⁹⁹⁾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의 뜻을 이루신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짐을 본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순종 속에서 우리의 참여가 강조된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하고 그의 뜻을 이루

92)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227.

93) 세계교회협의회 역음. 이형기 역. 『세계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종합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324.

94) The Whole Gospel for the Whole Person and Whole World. Ibid., 325.

95) 이은경. 『세계선교대회에 나타난 빈곤에 관한 고찰』, 230-234.

96) 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97) 박근원. 『오늘의 선교론』, (서울: 전광사, 1986), 226. 이 선언의 전문은 203-242 참조.

98) Your Will be Done: Mission in Christ's Way

99)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328.

는 일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른 선교”는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에서 잘 나타난다. 이것은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1) 삼위일체적 연결과의 관계성, (2) 온전한 인간성을 취함, (3) 근본적이고 영원한 새로운 요소-사랑, (4) 겸손의 역설과 십자가의 희생, (5) 부활과 종말 안에서 의 모든 것.¹⁰⁰⁾

이러한 샌 안토니오대회의 논의 내용은 이전의 WCC 기초와는 달리 상황(context)을 바라보되 그 상황을 먼저 성경 본문(text) 안에서 근거를 찾은 이후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WCC의 현장 일변도의 상황신학이 본문신학을 근거로 이루어짐으로써 본문신학과 상황신학이 통전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IV. 맺는 말: 두 신학의 협력 가능성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억압과 빈곤이 심화되는 세계상황, 특히 그 중에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신생 독립국들의 상황과 에큐메니칼 신학의 도전을 발전적으로 재점검하여 그 결과 로잔세계복음화대회(1974)에서 전통적인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신학으로부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을 이루어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전도의 우선성’이 강조되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약간의 불만을 가질 소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에서의 의견접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진영에서는 IMC 빌링겐대회 이후 옹살라대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사회복음 중심의 신학이 샌안토니오 CWME 대회(San Antonio Conference, 1989) 이후 복음전도에 대한 강조를 통해 신학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황과 아울러 본문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되었다.¹⁰¹⁾

한편 만을 강조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즉 성경 본문 중심의 복음화를 강조하는 교회 선교에서는 개인 영혼 편중, 교회 이식과 확장을 곧 선교의 전부로 생각하는 일,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극적 자세, 타종교 문제에 대한 배타주의적 의식, 교회와 사회의 이원론적 구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인간화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복음의 보편화, 사회적 개혁과 질서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극단적 생각, 선교의 사회 갱신과 해방적 의미에의 편중,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편파적 선호, 이에 따른 기구적 교회에 대한 소홀 등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황적 요인이다.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 ‘제3세계로부터 막대한 부를 수탈한 서구 국가들이 과연 기독교국가라고 말 할 수 있는가’라는 반성에서부터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복음이 잉태되었다. 이어 벌어진 1,2차 세계대전은 악마적인 인간 살상의 실상으로서 기독교국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부터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복음주의자들은 깊이

100) Ibid., 328-330.

101) 샌안토니오대회 이후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아직 후켄다이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또한 사실이다. John A. McIntosh, “Missio Dei.” In A. Scott Moreau.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633.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빈곤, 억압, 착취, 인권유린 등의 비인간적인 현실에 기독교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전개되어 왔다.

둘째, 에큐메니칼 신학에 있어서 신학적 요인은 성경 본문(text)에 관한 부분이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칼 신학이 타협 내지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구원 대한 확신의 부재,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 등과 같은 신학자 자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어서 대단히 해결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큐메니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기저로 하여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타종교에 대해서도 포괄주의나 심지어 다원주의를 허용할 정도로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missio Dei 개념 역시 복음주의적 개념을 변질시켜 그 개념을 독점해 온 것 역시 에큐메니칼 신학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WCC 선교신학은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WCC대회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 대회의 신학을 전개시켜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회의 흐름 속에 형성된 에큐메니칼 신학은 당연히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본문”(Eternal Word of God)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약점과 함께 복음주의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두 신학의 일치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진영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본문 그 자체에 지나치게 천착하여 “변화하는 세상”(Changing World)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이 시대를 걸쳐 전개되어온 에큐메니칼 대회의 신학을 그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된다. 둘째, 아울러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자들은 상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본문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보다 더 성경 본문에 대한 정직성과 성실한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양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여 타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면 두 신학의 합치성은 보다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광열. “총체적 복음사역의 성경적 원리에 관한 연구,” 『총체적 복음사역의 신학과 실천』 4호. 총체적 복음사역 연구소, 2007.
- 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김영동.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장신논단』 Vol. 45. 서울: 장신대학교선교연구원, 2013.
-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노봉린. “로잔대회 이후의 복음주의 선교운동,” 『선교와 신학』 제5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0.
- 박근원. 『오늘의 선교론』, 서울: 전망사, 1986.
-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복음과 선교』 제22집, 올리브나무, 2013.
-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0.
- 배본철. 『세계교회사』, 서울: 도서출판영상네트워크, 2009.
- _____. “WCC 선교론의 변천과 논제,” 『역사신학논총』 제 19집, 2010.
- 신경규. “Missio Dei의 본래적 의미와 의미변화에 관한 고찰,” 『고신선교』 제 4권, 2007.
- _____. “Missio Dei 개념에서 본 두 흐름의 선교신학.” 『성경과 신학』. 제 43권. 2007.
- _____.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사회참여,” 『대학과 선교』 제 14집, 2008.
- _____. “통전적 관점에서 본 두 선교신학의 합치성 모색,” 『선교와 신학』 제 29집, 2012.
- _____.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복음과 선교』 제 25집, 2014.
- 안승오. “통전적 선교신학의 태동과 전망,” 『복음과 선교』 제 15권, 제 2집, 2011.
- 이동주. 『현대선교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이은경. “세계선교대회에 나타난 빈곤에 관한 고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이현모.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선교학의 대응과 변화,” 『복음과 선교』 13집, 서울: 올리브나무, 2009.
- 이형기. “제7차 캔버라 W. C. C. 총회의 보고서,” 『장신논단』제 7집, 1991.
- _____.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비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_____.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_____. 『나의 신학수업의 패러다임 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_____. 『에큐메니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_____. 『세계교회협의회와 신학』 서울: 북코리아, 2013.
- 전호진. “현대선교신학 비판: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성경과 신학』 vol. 2.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984.
-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와 선교적인 교회(The Missional Church)-빌링겐 IMC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 20집,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상)』,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7.
- 한국일. “통전적 선교 신학: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의 대화적 관점,” 『기독교학술

- 원』 제 6호, 2005.
-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 편,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황순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한국선교신학회 엮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Bassham, Rodger C.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Bosch, David.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80.
- Escobar, Samuel. *A Time for Mission: The Challenge for Global Christianity*, 권영석 역. 『벽을 넘어 열방으로』, 서울: IVP, 2004.
- Goodall, Norman. ed. *Mission under the Cross*. London, Edinburgh House, 1953.
- Hoekendijk, Johannes C. “The Call to Evangelism.”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39. N. 154, (1950): 162-175.
- _____. “The Church in Missionary Thinking.”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July, 1952.
- _____.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흠어드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1966).
- Hooft, W. A. Visser’t. *The General Ecumenical Development Since 1948*. In H. E. Fey. ed.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vol. I & 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Hogg, William Richey. *Ecumenical Foundation*. New York, 1952.
- Graham, Billy. “Why Lausanne?”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 Hunt, Robert A, “The History of the Lausanne Movement, 1974-2010,”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April 1, 2011.
- The Jerusalem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March 24- April 8, 1928, vol. 1.
- Jonston, Athur P.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임흥빈 역. 『세계복음화를 위한 투쟁』,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Kinnemon, Michael & Antonius Kireopoulis. eds. *The Ecumenical Movement: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2hd ed. Geneva: WCC Publication. 이형기 외 옮김. 『에큐메니칼운동』 서울: 한들출판사, 2013.
- McGavran, Donald A. “The Current Conciliar Theology of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 _____. “What is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 Padilla, René C. 한화룡 역,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휘튼 66에서 휘튼 83까지,” 『복음전도·구원·사회 정의』, 서울: IVP, 1987.

- _____. "From Lausanne I to Lausanne III," *Journal of Latin American Theology*. 5 no 2 2010.
- Ruth and S. C. Niel. ed.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 P. C. K., 1967.
- Sider, Ronald J.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역,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서울: CLC, 2013.
- Stott, John.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L: IVP, 1975.
- _____.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 _____. "The Lausanne Covenant: With an Exposition and Commentary," In John Stott. ed.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 _____. ed.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 _____. ed. "An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 _____. ed. "The Grand Rapids Report o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1982),"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Grand Rapids, MI: Eerdmans, 1996.
- _____.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2.
- Steuernagel, Valdir R. "Social concern and evangelization: The Journey of the Lausanne Movement,"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5, Issue 2, April, 1991.
- Strinsky, T. "Missio Dei," In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Geneva: WCC Publication, 1991.
- Vicedom, Georg F. *Missio Dei: Einführung in eine Theologie der Mission*. 박근원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0[1960]
- WCC ed. *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이형기 역. 『역대총회종합보고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정병준. "암스테르담에서 부산까지: WCC 총회주제들 안에 나타난 WCC 운동과 신학," www.wcc2013.kr/sub04/sub01.php?code=board04_1&idx=5197&page=1&ptype=view (2014. 5. 5. 현재).
- "Capetown Commitment," <http://www.lausanne.org/en/documents/ctcommitment.html> (2012. 5. 5. 현재).
- "The Lausanne Covenant," www.Lausanne.org (2014. 4. 20. 현재).
- "The Wheaton Declaration," <http://www2.wheaton.edu/bgc/archives/docs/wd66/bcov.html> (2014. 4. 20. 현재).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에 관한 고찰

신 경 규
(고신대, 선교학)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로 문을 연 20세기 세계선교 대회는 이어지는 양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와 식민지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 이에 따라 선교신학도 상황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과 성경 본문을 우선시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으로 양분되게 된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양극화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극화로 치달았다. 복음주의 진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라든지, 사회구조적 악으로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무관심한 체 전적으로 선교의 수직적 차원인 복음전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복음전도의 강조보다 수평적인 관심에 치우쳤는데, 공동체들의 인간화나 고통 받는 자들의 해방과 같은 사회·정치적 활동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려는 데에 몰두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는 성경의 본문(text)을 중시 여겨서 복음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성하여 양육이 일어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구현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복음 그 자체를 중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의 내용을 중요시 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본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시대적 상황(context)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에 비하여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인간의 역사과정 속에서의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초창기 에든버러 대회(1910)의 낙관적인 전망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선교 현지에서의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인한 착취와 가난,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서의 관심도 복음전도는 도외시 된 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환치되고 만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읍살라대회(1968)에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 대신 ‘인간화’로 대체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성향은 방콕 세계전도 및 선교대회(CWME)의 주제인 “오늘의 구원”과 그 논의에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구원의 개념마저 미래적인 개념이 약화되어 오늘의 구원만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74)을 통해 복음주의신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재인식하고 시대적 상황(context)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로잔위원회 회의에서 선교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선교의 “넓은”이해와 “좁은”이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영국

의 하이리(1980)에서 협의회가 열렸는데, 하이리 협의회는 로잔 9항이 언급한 가난에 대해 더 구체화한 것으로 “검소한 생활방식을 위한 복음주의 서약”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파타야 대회(1980)와 같이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어지는 로잔 후속대회와 제 2, 3차 로잔대회를 거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의 방향성은 더욱 공고해 지게 된다. 이에 더하여 로잔대회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황이 성경 본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두 신학진영의 연합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복음주의 로잔대회의 결론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신학에도 영향을 주어 복음주의 로잔대회 1년 후인 1975년 열린 나이로비 5차 WCC총회(1975)는 선교에 있어 복음전도를 다시 강조한다. 나이로비에서는 WCC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것과 수직적 차원의 복음전도와 수평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한편만 강조 할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했다.

그 이후 미국의 샌안토니오 CWME 대회(1989)에서는 개인에 대한 복음전도와 구원의 강조와 Missio Dei의 현재적-종말론적 시각을 반성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통전적인 선교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 대회의 주제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 이어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장차 오게 될 나라의 영광이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드러나는 기도문으로서 워싱턴총회와 방콕대회에서의 인간화와 오늘의 구원을 강조한 것과 대비되어 종말론적 성경 본문에로의 회귀현상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는 로잔대회(1974)에서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이 변화된 점과 로잔의 영향을 받은 제5차 WCC 나이로비 총회(1975)와 에큐메니칼 멜버른 대회(1980), 그 이후 샌안토니오 대회(1989)의 선교신학이 본문을 중시 여기는 경향으로 돌아 선 것은 두 진영의 신학이 본문과 상황 사이에서 성경적인 방향으로 상호 수렴하는 선순환의 과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의 기조 역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반복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선교신학이 보다 온전하게 전개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 진영의 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교류 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고 상대방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아울러 상대의 견해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의 선교신학,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신학적 경향에서 이 양자의 신학이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해 오던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태도로 변화하고, 나아가 서로 연합한다면 협력사역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교계의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 개개인이 복음을 만나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소통, 화해, 공존'

신경규 교수 논문 논찬

현한나/고신대학교 국제문화 선교학과 교수

I. 여는 말

무엇보다 소통, 화해, 공존이라는 주제에 맞게 선교신학계에 있어서 복음주의계열과 에큐메니컬 진영의 다른 관점들을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애쓴 귀한 논문에 논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 را 드린다. 본 논문은 선교의 두 큰 흐름인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핌을 통해 두 진영이 선교적 상황과 성경 본문에 대한 강조점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뿐, 두 흐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한 몸 된 지체였음을 강조하여 최근에 나타나는 양극화된 현상과 상호간의 오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II. 본문 요약과 논평

본 논문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복음주의의 수직적 차원과 에큐메니컬의 수평적 차원의 선교적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 이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진영이 서로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 됨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에큐메니컬 진영이 본문(text)에서 멀어져 너무 사회적 상황(context)에 충실한 형태의 선교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1974년 로잔대회 이후 양쪽 진영에 선교적 합류점이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존 스토틀와 같은 신학자들의 영향력 아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을 통해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에큐메니컬 진영은 로잔대회에 도전을 받아 수직적 차원의 복음전도와 복음의 영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본문신학과도 균형을 가진 선교의 통전적 방향성을 갖게 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요지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양 진영이 본문(text) 중심 혹은 상황(context)중심의 신학이 가지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치점을 추구해가면 양 진영의 신학적 합의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이 선교신학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화해를 목적으로 양진영 간의 긍정적인 대화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필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두 진영이 본문과 상황 한쪽 측면에 치중한 선교신학을 극복하면 서로 간에 신학적 합류점을 찾아갈 수 있겠다고 보는 이 논문에서 다만 약간의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화해란 분명 필요한 것이고, 서로간의 소통은 협력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WCC가 역사적으로 총회를 거치면서 보여주었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일치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나 기반을 발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낸 WCC 신학 비판서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 비판』이란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요지는 WCC가 종교 다원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일치를 보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세계교회를 일치시키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 타종교와 구원에 대한 입장,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우선된 목적과 사명에 대한 입장 등은 복음주의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고 있는 개혁신주의가 지향하는 신학적 입장과는 쉽게 합일점을 찾기 어렵다.

III. 닫는 말

필자는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자의 입장에 서있지만 복음이 가진 생명력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예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있어서 얼마나 나 자신이 복음적인가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분열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파했던 남북한의 분단현실이 여전히 우리 신학계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임을 자각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 4500여개의 교회들은 525 회개기도운동을 통해 남한 땅의 죄악과 교회들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땅 가운데 부흥과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진정한 통일한국을 위한 길이며 무너지고 분열되었던 교회들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는 이미 부패하고 무너져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사 60:1)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된 몸 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목적과 질서대로 회복될 것이다.